“글쓰기는 ‘무소의 뿔처럼’ 가야하는 내 운명”

컬쳐 & 피플

소설가 공지영

“세상은 춥고 죽음은 도처에서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 아직도 백지 앞에 앉으면 ‘대체 소설은 어떻게 쓰는 걸까?’ 막막하지만 나는 앞으로도 더 자유롭게 희망을 노래하련다. 인간은 그리 작은 존재가 아니고, 삶은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사람들 사이의 연대는 소중한 것이다.”

소설가 공지영(50). 그녀는 지난 2011년 제 35회 이상문학상 수상소감 중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아는 작가다. 아니 천착하는 작가다. 여타의 평가와 호불호와는 다른 가치론적인 관점에 관한 이야기다.

공 작가 소설 이면에 흐르는 일관된 기조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함이다. 낮은 자, 고통 받는 자, 절망에 처한 자에 대한 위로와 지지는 그녀 소설의 기본 줄거리다. 삶의 한 복판에서 건져 올린 다양한 서사는 실의와 좌절에 빠진 이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준다.

최근에 서울에서 만난 공 작가는 여전히 소설에 대한 열정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 작년에 펴낸 ‘높고 푸른 사다리’는 많은 이들의 눈물을 적실 만큼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다. 작가 자신도 교정을 보면서 세 번이나 울었다고 고백할 만큼 울림이 깊다.

“작품 제목에서 ‘푸른’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바다를 뜻합니다. ‘사다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드리워진 동아줄과도 같은 것이죠. 소설에서는 수도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팔로어 숫자가 50만 명이 넘는 파워 트위터리안이다. 지난 대선 무렵 트윗에 올린 글은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그 단초를 제공한다. 너무도 첨예한 ‘정치판’에서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문인이 상처 없이 버텨내기는 힘겨웠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은, 작가에게는 역시 소설이 답이다. 글쓰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아마 공 작가도 그러했을 것이다.

여타의 평론가들과 일부 운동권 출신들이 그녀의 소설을 이런 저런 이유로 혹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녀는 국내 최고 권위의 이상 문학상을 받았으며, 누적 판매부수가 1000만 권에 달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어떤 이유와 식견을 들이대든, 독자가 부여하는 권위, 독자가 부여하는 권력을 이길 수는 없다.

“소설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썼습니다. 처음 쓴 소설로 연세문학상을 받았고 이전에는 시로 같은 상을 받았구요. 어린 시절부터 늘 문학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어렴풋이 작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대학 4학년 때 첫 소설로 연세문학상 받고 작가의 길

‘도가니’ ‘높고 푸른 사다리’ 등 소설로 사회 약자 위로

누적 판매 1천만권…팔로어 50만명 ‘파워 트위터리안’

그녀는 대학(연세대 연문과 81)에 진학한 뒤 사회 현실에 눈을 뜨게 된다. 당시 대학생들은 학생식당에서 밥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유복한 집안의 막내딸이었던 그녀에게 대학생활은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공 작가의 문단 데뷔는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계간 ‘창작과 비평’에 중편 ‘동트는 새벽’이 당선돼 등단했다. 1987년 대선 구로구청 부정 개표 반대 시위에 참여해 1주일 간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데 이때의 경험이 소설의 모티프가 되었다.

이후 공 작가는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는 베스트셀러를 쓰게 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 ‘고등어’, ‘봉순이 언니’,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도가니’ 등 펴내는 책마다 적잖은 반향을 일으키며 공지영이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킨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그 사이, 공 작가는 적잖은 시련과 맞닥뜨리게 된다.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혹하다 싶을 만큼 인생의 무게가 무거웠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 글을 쓸 수 없었어요. 왜 있잖아요? 전쟁 중에는 전쟁소설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였던 것 같아요.”

작가가 되뇌었다던 “도대체 왜”라는 질문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녀의 내면 한가운데 드리워져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저런 상처가 있었기에 오늘의 작가 공지영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모든 상처는 글쓰기를 위해 온 것 같고, 그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수년 전에 받아들였다”며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공 작가의 소설에는 고통을 이겨낸 자의 눈물이 담겨 있다. 여기에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솔직한 어법과 명료한 문장은 마치 꼭꼭 담아 두었던 말들을 작가가 속 시원히 풀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작품이 더 기대되는 건 그 때문이다. /서울=박성천기자 skypark@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지난해 5월, 모스크바 트레치야코프 미술관의 일리아 레핀 작품 앞에서 한동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No one waited for him· 1884년 작)라는, 다소 슬픈 제목의 그림 때문이었다. 오래전 도록에서 봤던 작품이었지만 막상 ‘진품’을 보니 더 가슴이 먹먹했다. 인간의 내면심리를 함축적으로 묘사한 ‘아무도…’는 러시아의 사실주의 거장 일리아 레핀의 대표작이다. 시대적 배경은 볼셰비키혁명의 폭풍이 휘몰아치던 19세기 말. 혁명전선에 몸을 던진 주인공은 긴 유배생활을 완성시켰다. 무채색의 묵직함과 흑백의 대비는 전쟁의 공포와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지난 2006년 영국 가디언 지가 선정한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걸작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다시 오월이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광주에서도 수많은 화가들이 5·18 민중항쟁의 참상을 증언한 작품들을 쏟아냈다. 작가들은 광주의 아픔과 가려진 진실을 걸개그림이나 판화, 벽화로 절절하게 표현했다. 강연균 화백의 ‘하늘과 땅 사이 II’, 신경호의 ‘그대의 눈물 속에’, 홍성담의 ‘오월-02-횃불행진’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의 ‘그날’을 되살려 낸 이들 작품은 한국적 리얼리즘의 지평을 여는 등 미술사적으로도 가치가 크다. 지난 2007년부터 광주시립미술관이 오월항쟁과 민주·평화·인권을 중심으로 민중미술컬렉션을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의 갑작스런 ‘컴백홈’은 가족의 평안한 오후를 깨뜨린다. 오랜 시간 가장의 부재(不在)에 ‘익숙해’ 있던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에선 반가움 보다 긴장감이 흐른다. 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가족사를 그린 ‘아무도…’는 오늘날 러시아의 ‘국보’로 대우받는다. 매년 트레치야코프 미술관에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를 보기 위해 몰려든 관광객들로 북적거린다.

‘아무도…’가 러시아의 아이콘이라면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고발한 피카소의 ‘게르니카’(1937년 작·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소장)는 세계의 ‘유산’이다. 작품의 배경은 1937년 4월26일 독일의 공군기가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게르니카 마을을 폭격해 7000명의 민간인을 살상한 사건이다. 당시 파리에서 이 소식을 들은 피카소는 한 달 동안 작업에 몰두해 ‘게르니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민중미술컬렉션은 아직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광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콘텐츠이지만 전국화, 세계화는 요원해보인다. 광주시립미술관의 브랜드 마케팅과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탓이다. 이젠 오월 작품들을 수집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이들을 ‘글로벌 콘텐츠’로 키울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때로 한 장의 그림은 그 어떤 메시지보다 깊은 울림을 준다. ‘게르니카’가 존재하는 한 스페인 내전의 비극이 잊혀지지 않는 것 처럼. 그게 바로 예술의 힘이다. 〈편집부국장 겸 문화선임기자〉

‘오월 창작 가요제’ 하반기로 연기

광주시 “세월호 참사 애도”

오는 10일 조선대 1·8극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4회 전국 오월 창작 가요제가 연기됐다.

행사 주최측인 광주시는 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애도 분위기에 휩싸여 있고 많은 축제들이 취소 및 연기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오월 창작가요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주관단체인 (사)오월음악·오월창작가요제 추진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애도 분위기를 고려, 행사 자체가국민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시의 일방적인 연기 요청에 애석함을 표한다”며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제4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본선은 7월 이후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킴스타워 지하 1층~지상 5층(분양)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오늘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텔/투룸/전원주택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20실)현재 성업중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텔,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 나주시 남내동 투룸 16세대 대지 390㎡ 건물 660㎡ 매11억
◦ 나주시 다도면 초등학교 부근 나주호 앞 3층 전원주택 대지 655㎡ 편백나무 2,560㎡매 7억
전/대지/과수원
◦ 나주시 송월동 대지 495㎡ 4차선대로 코너 매 3억9천만
◦ 나주시 관정동 답 매립지 7,547㎡ 2차선 도로변 옹벽설치 매 3억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인근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전(일부 대지 포함)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차선 돌변 배 과수원(일부 대지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냉동창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 5천만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7,603㎡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지역 매매 3억8천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2억2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양덕 유 재 관
급히구합니다
1)점포 : 갈비집7명,커피숍3명,슈퍼5명,카페3명대기중
2)주택,아파트 전월세 : 다수 대기중
3)상가빌딩,가든,모텔,펜션 : 금액대별 18명 현금대기중

급매합니다
1)영암 국도변 3면코너 [다이어 몬드 가든] 급매 4억3,000만원(1일매출100만원이상 대박집)
2)능주 가든별장 : 1,525㎡/ 별도 저수지 유료낚시터 가능 총가 1억1,500만원
3)대인동 상업지 3.3㎡ 140만원 투자가치 엄청
상가점포,사무실,원룸,투룸 임대매물도 많아요
화순,담양등 터좋은 야산,농장등도있습니다
다음카페[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 해 보세요!
Daum 즐거운부동산세상
부동산,세무,건강등 넘 좋은 정보 많아요
동부소방서4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직통062)229-0088

년6억 收益
모텔 최고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장부오픈, 확인 후 계약가능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 심야전기
매가 33억(융 15억) 현금 18억
(가격절충 불가, 부동산 사절, 실수요자만)

문의전화 010.5188.5515